금주의 법구–〈대길상경〉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하지 말라.
슬기로운 이와 가까이 지내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겨라.

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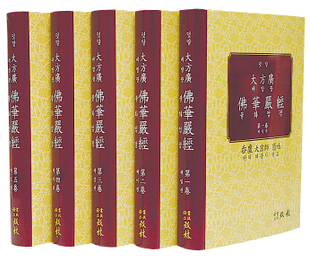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64호 구독신청 (02)2004-8212 창간 25 1994~2019 (불기 2563년 음력 9월 18일)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經 읽고 싶다” 부탁에 화엄경 ‘덧말’ 입히다

서우담 대표 〈덧말 불화엄경〉 역경 불사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탄허 현토 〈불화엄경〉 음 달아
원고지 1만3천 장 3년간 작업
잘못 알려진 한자음 수정키도
출판제작비 독지가 스님 후원

탄허 〈불화엄경〉 5종류 출간
육성 강설 유튜브에 남기고파

서울 낙원동 인근 자리한 교림출판사. 몇 명의 스님이 서우담 대표를 찾아왔다. 스님들은 출가 시절 근현대 대강백 탄허 스님을 시봉했던 서 대표에게 부탁을 했다. “중 된지 30년이 됐는데 무식해 한자를 몰라서 경전 한 줄을 못 읽었다. 경전을 읽고 독송하고 싶다.”

스님들의 부탁을 듣는 순간 서 대표는 50여 년 전 춘성 스님의 당부가 떠올랐다. “선방 수좌를 위해 〈화엄경〉에 우리말 덧말을 붙여라.”

시절 인연이 왔다고 생각한 서 대표는 곧바로 〈화엄경〉에 한글 음을 다는 작업에 착수했다. 3년 후 서 대표는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을 세상에 선보였다.

서 대표는 10월 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방광 불화엄경〉에 덧말을 달아 남녀노소 누구나 한번쯤 읽어볼 수 있게 단락을 달아 〈덧말 대방광 불화엄경〉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가 덧말을 단 〈화엄경〉은 탄허 스님이 현토(懸吐, 한문 구절 사이에 우리말 조사나 어미를 붙이는 것)한 〈대방광 불화엄경〉이다.

스승의 현토본 〈대방광 불화엄경〉 40품 59만4000여 자에 서 대표는 일일이 우리말 음을 달았다. 200자 원고지로 1만3000여 장 분량이며 총 페이지만 3200쪽에 달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다. 경전은 5권으로 나눠 제작됐으며 전체 금장으로 대를 이어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또한 서 대표는 우리말 음을 달며 잘못 읽히고 있는 한자음을 수정·집필했다.

이 같은 불사가 이뤄질 수 있던 데에는 독지가의 도움이 크다. 〈덧말 불화엄경〉이 완성됐다는 소식을 들은 한 스님이 출판사로 찾아와서 “금생에는 내 이름 석자 들을 생각말라”며 출판 제작비를 보시했다. 서 대표는 “‘아직도 이런 스님이 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다. 스님의 도움으로 우리말을 입힌 〈대방광 불화엄경〉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서 대표가 이끄는 교림출판사는 〈화엄경〉을 총 5종류로 출간했다. 첫 〈화엄경〉 역경은 탄허 스님으로부터 시작했다. 탄허 스님은 1956년부터 오대산 수도원 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화엄경〉 번역에 착수해 10여 년에 걸쳐 역경을 완료했다. 이후 탄허 스님은 1974년 화엄학연구소를 만들고 〈신화엄경합론〉 47권을 출간했다. 탄허 스님의 〈신화엄경합론〉은 △〈화엄경〉 80권 △〈통현론〉 40권 △〈청량국사 화엄소초〉 △〈회석〉 △〈현담〉 △계환선사의 〈화엄요해〉 등 287권의 화엄 관련 경·론·소가 집대성돼 있다. 교림출판사는 〈신화엄경합론〉을 3차례에 걸쳐 다시 출간했다.

2009년에는 가로쓰기 80화엄원문 현토 5권을 간행해 전 세계 약 500여 곳의 동양학연구소에 기증했다. 2011년에는 세로쓰기 법공양본을 간행해 국공립도서관과 전국 사찰 강원에 기증했다. 그리고 2018년 화엄게송 현토역해 탄허본을 출간했으며 올해에는 〈덧말 불화엄경〉을 발간했다.

올해로 82세가 된 서 대표는 더 이상 역경불사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덧글 불화엄경〉이 마지막 인연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력이 된다면 유튜브에 탄허 스님 육성 강설을 편집해서 올리고 싶다”는 계획을 조심스럽게 밝혔다. 탄허의 아난, 서우담은 아직 스승의 가르침을 전하겠다는 원력으로 살아가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취임 1주년을 맞아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짜장면 배식봉사를 하며 자비행을 실천했다. 사진은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찾아가는 짜장공양 밥차를 이용해 짜장소스를 만든 조계종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 사진=노덕현 기자

“사회적 약자 도움이 제일 기억 남아”

원행 스님 1주년 기념식 · 기자간담회서 소회 밝혀

‘백만원력’ 종도들 관심 높아
“구체적 성과 도출 노력할 것”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자비행을 펼친 뒤 “사회적 약자를 만난 일이 기억에 남는다”는 소회를 전했다.

원행 스님은 10월 7일 서울 템플스테이 종합정보센터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각계 인사들 중 기억에 남는 만남으로 KTX 해고승무원, 쌍용차 해고노동자,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꼽았다.

원행 스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이들, 어려움을 이겨낸 사회적 약자들을 만난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KTX 해고승무원과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복직이라는 성과를 얻은 뒤 버팀목이 된 스님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을 때가 생각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행 스님은 종단 내 사회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관련 사회현안에 나설 것을 적극적으로 주문하는지 묻는 질문에 “사회노동위원회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나 단체장 등을 만났을 때도 약자들을 챙길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원행 스님은 제36대 집행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대해서도 최근 지역의 관심이 높아져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최근 화엄사와 동화사에서 열린 백만원력 결집불사 지역대회와 관련해 “굉장히 호의적이고 관심 많은 게 느껴졌다. 무엇보다 꼼꼼하게 행사를 준비하고, 이에 대한 열의도 높아 좋았다”며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제는 모든 불자들이 잘 해줄 것이라 믿고 구체적인 성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 LA에서 열린 한인행사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과 참여한 원행 스님은 현지서 발생하는 사찰 삼보정재 망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표했다.

원행 스님은 “스님들이 미국에서 사찰을 일구고,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때부터는 이사회가 삼보정재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다. 미국이 법인성격에 관대하기 때문”이라며 “창건 초기 조계종 승인 없이 재산 처분을 못하게 한 조항도 이사회에서 삭제한 뒤 몇몇 이사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사찰들이 있어 종단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행 스님은 이날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을 방문,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함께 짜장면 점심공양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 행사는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의 자비나눔 방문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스님들은 ‘찾아가는 짜장공양’ 밥차를 통해 짜장 소스를 만들고 배식봉사를 했다.

짜장면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어르신 700여 명을 위해 마련됐으며, 원행 스님은 1시간가량 봉사활동 이후 복지관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9년 창간 25주년 특집호 A · B 섹션 40면 발행



창간 특집 기획
◀백만원력의 시대 A9 · 10 · 11 · 12
불교언론 & 뉴미디어 B3 · 4 · 5 · 6 · 7



데스크 초대석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 스님 A6
명사 창간 축하메시지 A7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현대불교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불교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불법을 수호하고, 진리의 길로 사부대중을 이끄는 신문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총무원장 원 행

대한불교조계종